부시 "北 최악 독재국가" 또 언급

'2·13합의' 이행 지연 불만인 듯

"중·러도 민주국가 아니다" 비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북한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중 하나로 다시 언급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독재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는 반(反)정부 민주화운동가들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G-8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앞서 방문한 체코 프라하에서 17개국 출신 민주화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북한을 벨로루시, 미얀마, 쿠바, 수단, 짐바브웨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다시 지칭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면서 각 독재국가의 인권실태를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만스럽게 억압받는 폐쇄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북한주민들은 남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벨로루시, 미얀마, 쿠바, 베트남, 이집트 등의 민주화운동가들이 부당하게 투옥돼 있거나 가택연금돼 있어 이번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이들을 "즉각적이고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핵 6자회담 '2·13합의'를 전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해온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최악의 독재국가'로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2·13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체코와 폴란드에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배치하는 미국의 계획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에선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개혁이 궤도를 이탈, 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해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치체제를 개방하지 않고, 경제개방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쌀 지원 유보에도 남북관계 예정대로

北,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 즉각 응해

6·15행사 남측 당국 초청 여부는 '불투명'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우리측의 쌀 지원 유보 방침으로 사실상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다.

남북은 7~8일 개성에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우리측의 지난 4일 제안에 북측이 곧바로 응한 것으로, 쌀 지원 유보와 상관없이 남북경협 사업을 차질없이 끌고 가려는 북측 방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남측의 쌀 지원 유보 방침이 이미 확정됐던 지난달 24일에도 군사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 8일 남북 군사당국이 머리를 맞댄다. 아직까지는 쌀 지원 유보로 남북관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작년 7월 제19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의 쌀 지원 유보 방침을 확인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소하고 당국 간 대화를 단절하는 등 강력 반발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렇지만 쌀 차관 유보가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우선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이나 군사 실무회담 등 현재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일정들이 모두 북측이 아쉬워하는 사안이라는 점 때문이다.

작년 6월 합의됐지만 이행되지 못하다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지난달 17일 진행되면서 1년 만에 빛을 본 것으로, 남측은 오는 27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 북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북측의 의중은 오는 14~17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당국 대표단을 초청할 지 여부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3월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6·15행사에 당국 대표단도 적극 참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행사를 일주일 정도 앞둔 현재까지도 당국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5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세인트 안젤름 대학에서 진행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10명의 후보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美 공화당 TV 토론 '이라크戰' 최대 쟁점 부상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 이어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이라크전쟁이 토론회 초반부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 문제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으며 이민과 낙태, 기후변화, 종교적인 신념 문제 등을 놓고 후보들간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5일 오후 뉴햄프셔주(州) 맨체스터에서 CNN방송이 생중계한 이날 토론회에는 공화당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비롯해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대선 후보 10명이 나왔다.

이들은 이틀 전에 토론회를 개최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과 차별화된 입장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아베측근 "위안부, 문제 안돼" 망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브레인인 오카자키 히사히코 전 태국주재 대사가 5일 도쿄도내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춰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카자키 전 대사는 "20세기는 중국에서 수천만명이 죽었으며, (구소련에서는) 스탈린의 숙청으로 수백만명이 죽었고, 미국도 원자폭탄과 드레스덴 공습을 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문제도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미국 방문시 "20세기는 인권이 모든 지역에서 침해를 당한 시대"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언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포식공룡 'T-렉스' 시속 40㎞ 못 넘어

사나운 포식공룡의 대표 격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T-렉스)의 몸집과 속도를 최신 컴퓨터 모델로 재현한 결과 몸무게는 종전 가설보다 2배나 무거운 6~8t였으며 시속 40㎞ 이상 빠르게 달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T-렉스는 이처럼 큰 몸집 때문에 몸을 45도 돌리는데도 몇 초씩 걸려 재빠른 먹잇감을 잡아 먹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새로운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英 연구진 컴퓨터 재현

무게 등 종전 가설 뒤집어

영국 수의과 대학의 존 허친슨 박사 등 연구진은 이론생물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T-렉스에 관한 기존 생물공학적 자료들에 몇가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컴퓨터 모델로 계산한 결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던 3~4t의 몸무게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이들의 컴퓨터 모델 연구는 T-렉스의 무게 중심과 관성을 계산해 이 공룡이 서고 걷는 방식과 더 나아가 회전 능력까지 재현해 냈다. /연합뉴스

中 "美 MD 구상 반대 러시아 지지"

체코 야당 당수도 "자국내 MD 구축 반대"

중국은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기지 구축 구상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해 온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5일 밝혔다.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MD가 지역 내 전략적 균형과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열강간 상호신뢰 구축에 이롭지 못하며, 새로운 핵확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유럽 내 MD 구축은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MD 구축 구상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적 대응(retaliation)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MD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러시아가 이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편 체코 야당인 사민당의 지리 파루벡 당수는 5일 수도 프라하를 방문중인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회담한 뒤 "MD 구축에 반대하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체코의 중도우파 연합은 MD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내년 의회 의 비준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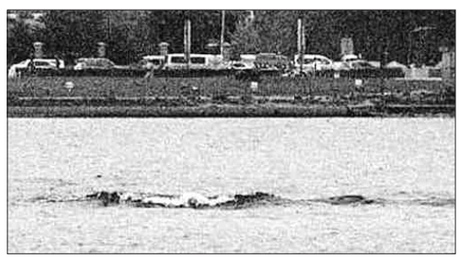
미국은 동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레이더 기지는 체코에 설치하고 미사일 요격 기지는 폴란드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베이징·프라하dpa=연합뉴스

中 선양 하천에 정체 모를 수중괴물이…

중국 선양(瀋陽)시 남쪽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는 훈허(渾河)에서 정체 미상의 수중 괴물이 목격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선양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훈허의 괴물체는 올해 5월 중순 전후로 4~5차례 강에서 수영을 하는 시민들에게 목격됐으며, 급기야 지난 1일에는 강 중앙을 가로질러 헤엄치고 있는 괴물체의 모습이 현지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훈허 강변에 위치한 우리허공원에서 수영을 하다 괴물체를 목격했다는 시민 마(馬)모씨는 "괴물체는 길이가 20m 정도였으며, 수면에 나타낸 부분은 은백색을 띠고 있었다. 지느러미로 보이는 부분은 약 30㎝ 정도였으며 모터보트보다 빠른 속도로 50㎝ 높이의 물살을 만들면서 헤엄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선양=연합뉴스



중국 선양시를 가로 지르는 훈허(渾河)에서 지난 1일 촬영된 괴물체의 사진. /출처 : 요심만보(遼瀋晚報)=연합뉴스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도·소매)

도쿄쥬스 남·녀 의류,신발,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1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2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4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광주 최초 일본 구제 멀티샵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기분좋은 변화 개성연출
⊙Nippon Style

⊙최상의 품질
⊙부담없는 가격
⊙편안한 쇼핑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신발,가방,우산,실내화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캔도 프린세스 슈가룬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

(株)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다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초대졸 커플매니저 0명 모집

(株)행복출발 호남지역총괄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비즐닷컴 >go 을 치세요